

“美 관세협상, 주도권 확보 과정… 원전 2기·SMR 건설될 것”

김정관 산업장관, 기자간담회

“인도 등 美 관세 무지막지 올라
협상 진행중, 나쁘지 않은 상황”
“2035년 대비 원전건설 불가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가 양국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투자가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고 오해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 펀드를 두고 MOU(양해각서)라는 접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식당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을 찾았는데, 우리도 협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속된 말로 트럼프 임기 동안은 피해 기업에 관세 보조금을 주며 버티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단순히 피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20차례 러트니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 말한 ‘내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라’는 거래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안도 미국에선 불합리할 수 있다”며 “양측이 다소 터프하게 오가더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놔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건설 역할 분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건설과 글로벌 수출은 성격이 달라 산업부가 수출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작용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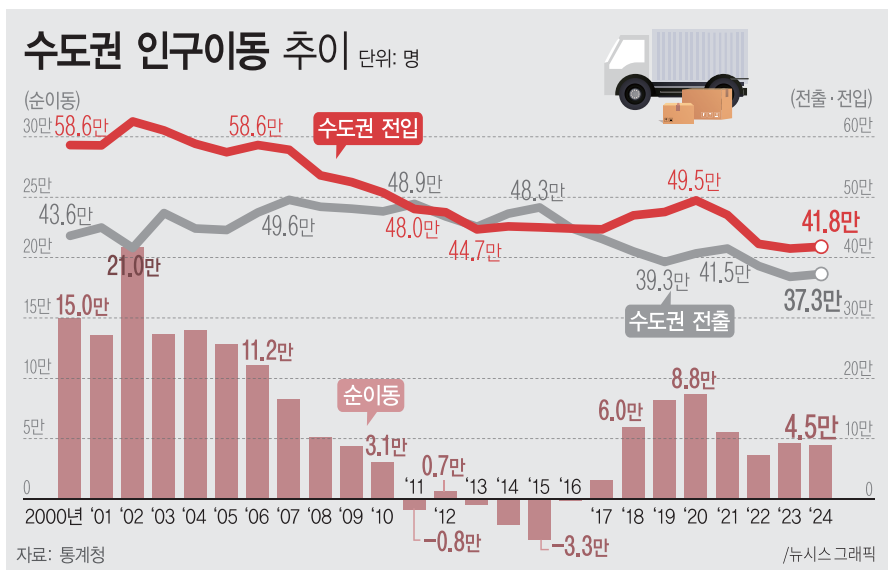
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이 된 만큼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한 결정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성환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이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부르고 싶다”며 “환경보다 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산업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협상과 더불어 국내 산업 현안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이 아니면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가 1순위 정책”이라며 “AI 도입이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절박함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드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10월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직업·교육 찾아 청년층 20년째 수도권 유입

통계청,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2052년 수도권 인구 53.4% 전망

수도권 인구가 8년째 순유입을 나타냈다. 특히 비수도권 태생의 청년층이 취업 및 교육의 이유로 서울·경기·인천으로 향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41만801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37만2850명으로 이보다 적었다.

작년 한 해에만 4만5169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순유출로 돌아섰다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2017년에 다시 증가(순유입)로 복귀했다.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2017년(+1만6006명)에 비해 2018년(+5만9797명)과 2019년(+8만2741명), 2020년(+8만7775명)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에 +5만5697명, 2022년 +3만6643명, 2023년 +4만6869명, 2024년 +

4만5169명 등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 원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내 취업·교육이 꼽힌다. 지난해 40~64세 중장년층 인구는 수도권에서 1만7983명 순유출됐다. 이에 비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청년층(19~34세) 인구는 중장년에 비해 훨씬 많은 6만1490명에 달했다. 청년층 인구는 2004년부터 20년째 순유입, 중장년층 인구는 2007년부터 17년째 순유출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은 인구가 순유출되고 경기는 순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해에도 서울 인구는 4만4692명 순유출, 경기는 6만4218명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023년(-3만1250명)에 비해 유출 규모가 커졌고 경기는 2023년(4만4612명)에 비해 유입 규모가 확대됐다. 인천의 경우 2017~2020년 인구가 순유출됐다가 2021년부터 2024년(2만5643명)까지 4년 동안은 순유입됐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모두 인구가 순유입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LGU+, 부산서 자율주행버스 4대 운행

오시리아역·기장해안로 등 서비스
당분간 무료… 향후 운행구간 확대

LG유플러스가 부산 오시리아 관광 지구에서 시민 대상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개통식 이후 2000km의 시운전을 마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자율주행버스는 16인승 전기버스 4대가 투입돼 오시리아역·롯데몰·국립부산과학관·기장해안로 구간을 오간다. 일반 차량과 같은 도로를 달리며 신호등과 연동해 자동 정차·출발하고, 보행자와 도로 상황을 인식해 안전하게 운행한다.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일반 버스처럼 탑승할 수 있으며, 당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버스는 동일 노선을 반복 운행하며,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내성~중동 BRT 구간으로도 확대된다.



자율주행버스가 동해선 오시리아역을 지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이번 사업은 LG유플러스가 주관하고 라이드플러스(자율주행차 제작), 엔제로(관제시스템), 트라콤(교통인프라)이 참여했다. 차량, 도로 인프라,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돌발 상황에 대응하며, 관제센터는 버스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 관리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릉·천안·시흥 등에서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시작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45.3억 弗 적자

한은, 수출 197.1억 弗 기록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45억3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전문·사업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적자폭이 컸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45억3000만달러 적자다. 수출이 197억1000만달러, 수입이 24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지식서비스 부문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를 포함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서비스는 19억6000만달러, 문화·여가서비스는 4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 제작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드라마를 납품하거나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어 벌어들이는 수입이 문화·여가서비스로 잡히면서 증가했다. 전문·사업서비스

는 44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회사에 전문 연구개발(R&D)을 발주해 수입이 늘었다.

전문·사업서비스의 수입은 ▲2023년 상반기 70억6000만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84억2000만달러 ▲2025년 상반기 94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24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은 15억3000만달러로 흑자를 냈지만, 산업재산권은 18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에서 16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제조업과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서 각각 24억7000만달러, 22억달러 적자를 냈다.

/나유리 기자 yul115@